

Merck, 젊은 과학자상 수여

한국Merck은 10월15일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에서 2008년 Merck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다.

2008년 5회째를 맞은 Merck 어워드 수상자는 플렉서블디스플레이·플라스틱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김한준 외 11명(HP)과 프랭크 제프리 외 4명(파워필름)의 <Roll-to-Roll Manufacturing of Electronics on Flexible Substrates Using Self-Aligned Imprint Lithography(SAIL)>,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김선영 외 5명(경희대)의 <A high efficiency green phosphorescent OLED with simple double emission layer structure>, 액정 기술과 비발광형 디스플레이(Non-Emissive Display) 분야에서는 최현철, 정인재 외 6명(LG디스플레이)의 <Development of Narrow Viewing Angle Mode TFT LCD and Application of Advanced Gray Compensation(GC) Algorithm> 논문이 본상을 수상했다.

또 Merck 젊은과학자상은 서울대 홍종호 외 3명이 <Direct Formation of Bi-level Microstructures for Wide-viewing Liquid Crystal Displays with Plastic Substrates>로, 삼성SDI의 송재혁 외 8명이 <Fast response time PDP phosphors for 3D display application>로 수여 받았다.



IMID는 10월 14-17일 진행되는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한국전자전(KES), 반도체대전(i-SEDEX)과 함께 국내 최대의 전자 IT 합동 전시회로 개최되고 있다.

Merck 어워드는 2004년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을 기념해 디스플레이 기술 부문의 뛰어난 과학적인 업적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기술논문상으로, 매년 한국 정보디스플레이 학회가 연구의 독창성과 기술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0/16>